

2021 다(多)가치포럼

#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 01 주제발표

김영순

인하대학교사회교육과 교수

## 02 사례발표

유현경

구로온마을교육지원센터장

## 03 주제토론

신혜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문민

중국동포대림 국제학원장

김유나

존스홉킨스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 행사 일시

2021년 9월 10일 14시

### 참여 방법

 YouTube 구로문화재단 라이브스트리밍 시청 및 실시간 채팅 참여











# 목 차

<b>01 인 사</b>	<b>09</b>
---------------	-----------

<b>02 행사순서</b>	<b>13</b>
----------------	-----------

<b>03 주제발표</b>	<b>15</b>
----------------	-----------

김영순,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16
---------------------------	----

<b>04 사례발표</b>	<b>47</b>
----------------	-----------

유현경, 구로온마을교육지원센터장	48
-------------------	----

<b>05 주제를론</b>	<b>69</b>
----------------	-----------

신혜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70
-----------------	----

문 민, 중국동포대림·국제학원장	72
-------------------	----

김유나, 존슨홉킨스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76
-----------------------	----







01

2021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인사말

개회사  
김정룡  
다가치포럼  
운영위원장

이 비상시국에 ‘다가치포럼’ 토론회가 개최할 수 있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로문화재단과 서울서남권글로벌센터 두 기관과 동포사회에 관심 있는 내국인 여러 분 및 동포사회 활동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 모택동 주석께서 “청소년은 아침 8·9시 태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은 미래를 짊어질 동량이라는 뜻이다. 미래의 동량이 되려면 건전하게 배우고 건전하게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면 이주민이 많이 모여든다.

‘살기 좋으니깐!’

80만 명 되는 재한동포사회도 여러모로 환경이 좋은 한국에 자녀들을 데려오고 있다. 이들을 ‘중도입국 동포청소년’이라고 부른다. 중도입국 청소년 일부는 한국에 잘 적응하여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부모들이 장밋빛 환상을 갖고 자녀들을 한국에 데려왔는데 실제 생활은 장밋빛이 아니라 어두운 면이 많다.

언어차이, 문화차이, 교육환경차이, 주거차이, 부모들이 한국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들은 적응이 어렵고 힘들다.  
‘적자는 생존한다.’는 말이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적응이 어렵고 힘들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취직도 어렵고 힘들다. 미래 동량으로 건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나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지거나 매일 PC방에서 중이 종 치듯 무의미하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 이들의 앞날이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토론회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실태를 정확히 짚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잘 모색하여 사회에 공론화하고 정부에 개선책을 제시하는 훌륭한 논의들이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진정한 미래 동량으로 성장하는데 저희 ‘다가치포럼’이 힘을 보태겠다.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코로나19사태에 이르러 중국인에 대한 차별·혐오가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재한중국인사회는 이와 같은 차별·혐오 현상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하거나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마땅히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재한중국인사회는 내국인에 비해 공공의식이 결여된 것도 사실이고, 시민의식이 결여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수준 제고에 힘 써야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식과 자질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의롭지 못하고 차별적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식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한 중국인사회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기여한 것들이 있으면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포럼은 코로나19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중국인(동포포함) 이주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혐오 현상을 극복하고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2021년 9월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장 김 정 룡





02

2021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행사순서

# 2021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행사순서

시 간	내 용
13:30 - 14:00	참석자 등록
14:00 - 14:05	개회 및 사회자 인사
14:05 - 14:20	인사말
14:20 - 14:30	포럼안내 및 단체사진 촬영
14:30 - 16:00	주제발표
16:00 - 16:30	사례발표
16:30 - 17:30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17:30 -	폐회

- 개회사     김정룡 (다가치포럼 운영위원장)
- 환영사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 축    사     윤건영 (구로구을 국회의원)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 좌    장     전춘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 발    제     김영순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유현경 (구로온마을교육지원센터장)
- 토    론     신혜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문    민 (중국동포대림·국제학원장)  
                  김유나 (존슨홉킨스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03

2021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주제발표

---

---

#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

---

---

김영순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2021 무지개다리사업> 다(多)가치포럼 토론회 (09. 10. (금) 14시)

##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

김영순 교수

인하대 BK21 FOUR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단장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www.cims.kr](http://www.cims.kr)

### 강연자 소개\_연구



## 목차

---

1. 들어가는 말
2. 중도입국 학생 개념과 현황
3.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 사례
4. 맺음말



## 1. 들어가는 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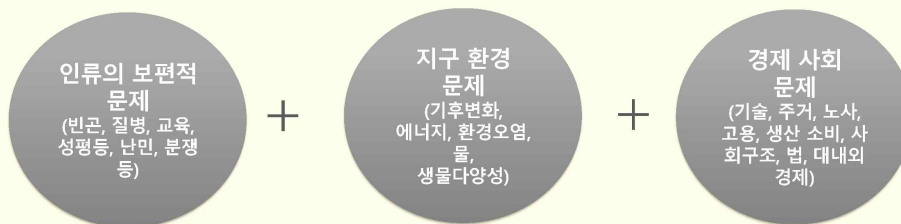
## 1. 들어가는 말(1)

우리는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변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유명하는 존재가 됨. 유엔(UN)은 세계문제를 초국가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함.



## 1. 들어가는 말 (2)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년~2030년



-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임. 이 목표를 실현하고자 각국 정부는 세계시민교육을 선포하고 세계문제에 참여하는 시민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 들어가는 말(3)

###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17대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10	불평등 완화
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11	지속가능한 도시
3	건강과 웰빙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4	<b>포용성 있는 양질의 교육</b>	13	기후변화와 대응
5	양성평등	14	해양 생태계
6	물과 위생	15	육상 생태계
7	에너지	16	평화와 정의 제도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7	파트너십
9	혁신과 인프라		

- 이 글의 주제인 중도입국학생의 학교교육은 특히 SDGs의 네 번째 목표 '포용성 있는 양질의 교육'과 관련이 있음.
- 민주주의 체제에서 교육은 정치 참여의 주체로서 시민, 기회의 균등,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 부의 분배를 배우는 장임.
- 이런 의미에서 중도입국학생의 교육문제는 내적으로는 민주주의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SDGs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 2. 중도입국학생 개념과 현황

### 1) 중도입국학생 개념





## 1) 중도입국학생 개념(1)

### 2. 중도입국학생 개념과 현황

- 중도입국청소년은 주로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 관광비자 등의 형식으로 입국하여 공교육에 진입하지 않거나 귀화 신청을 하지 않고 머무는 경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임(정세진 등, 2018: 26).
- 중도입국학생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범주에 속함.

\*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

## 1) 중도입국학생 개념(2)

### 2. 중도입국학생 개념과 현황

- 이런 이주배경 청소년은 성장기 청소년의 발달과업은 물론이고 이주민이 경험하는 인종, 종교, 민족, 문화 등의 다름으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음(김은경, 김현주, 2017: 246).
- 특히, 부모의 재혼으로 중도에 국내로 입국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이미 경험한 가정해체, 분리나 고립 등으로 정서가 불안하고 적응에 어려움이 따름.
- 입국과 더불어 새로운 가족, 학교, 사회 등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등에 따라 일반 이주배경 청소년보다 큰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음(양미진 등, 2012; 오승환, 좌현숙, 2015).

## 1) 중도입국학생 개념(3)

2. 중도입국학생 개념과 현황

### 기존-새로운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

기존 이주배경청소년	새로운 이주배경청소년	비고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b>중도입국청소년</b>	<b>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b>	<b>중도입국청소년</b>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탈북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b>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b>	<b>중도입국청소년</b>
	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 1) 중도입국학생 개념(4)

2. 중도입국학생 개념과 현황

- 교육부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을 세 가지로 나눔. (교육부, 2020: 27)

첫째,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함.

둘째,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존재함.

셋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며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2. 중도입국학생 개념과 현황

### 1) 중도입국학생 현황



### 2) 중도입국학생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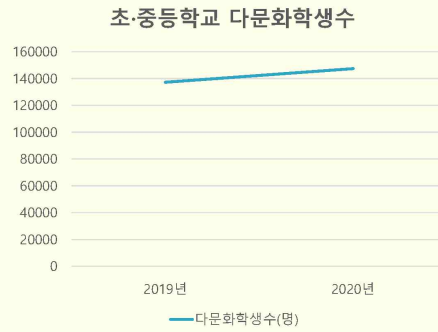
#### 2. 중도입국학생 개념과 현황

- 세계화로 인한 초국적 이주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님.
- 다양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인 2,216,612명으로 총 인구의 4.3%에 해당함.
- 특히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음.
- 또한 외국에서 성장하다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중도에 입국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 중도입국학생 개념과 현황

## 2) 중도입국학생 현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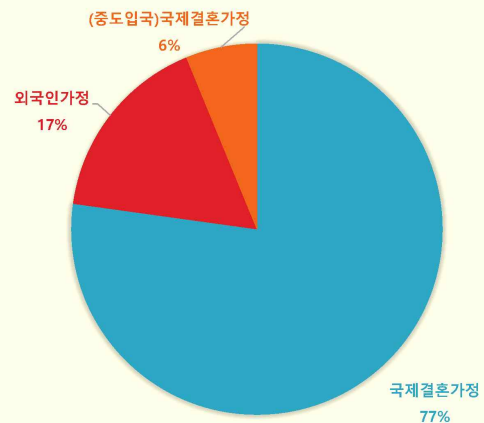
- 2020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각종학교를 포함한 초·중등학교에 등록된 다문화 학생 수는 147,378명이며, 이 수치는 2019년 대비 **7.4%(10,153명)가 증가**한 것임.
- 전체 다문화 학생 중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이 77.2%인 113,774명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가정이 16.6%인 24,453명,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이 6.2%인 9,151명 순으로 많음(교육부, 2020).



2. 중도입국학생 개념과 현황

## 2) 중도입국학생 현황(3)

- 전체 다문화 학생 중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이 77.2%인 113,774명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가정이 16.6%인 24,453명,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이 6.2%인 9,151명 순으로 많음(교육부, 2020).



## 1) 중도입국학생 현황(4)

- 중도입국 자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데, 2012년 4,288명을 시작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9,151명에 달함.
- 이와 같은 다문화 학생 수는 국내 전체 학생 수의 2.8%를 차지함.
- 다문화 학생 수가 가지는 의미는 저출산 현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음.
- 저출산의 영향에 따라 일반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 중도입국학생 현황(5)

- 중도입국학생의 국적별, 연령별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함.
- **연령** 별로는 11~15세가 34.5%로 가장 많고, 16~18세는 25.8%, 6~10세는 26.6%, 0~5세는 13.1% 순으로 많음.

## 2) 중도입국학생 현황(6)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 차원, 가족차원, 학교차원, 사회·문화 차원으로 나누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을 살펴 봄.
- **개인 차원**에서 볼 때, 만 9세~24세에 속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함.중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함.
-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직면하고 경험하는 시기에 있고, 현실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느낌이나 평가인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주요 발달과업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음.(박옥현, 2017: 13; 신명희 등, 2011: 66).
- 특히 부모에게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있는 재혼 가족에게 중요한 가족 응집력과 충돌하여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최영미, 송영호, 2020: 196-197).

## 2) 중도입국학생 현황(7)

- **가족 차원**으로는 국내에서 나고 자란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다르게 이들은 주로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어 습득이나 한국문화이해 등에 대한 준비없이 국내에 입국하게 됨.
-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부모와의 오랜 소통단절로 인한 원망과 분노가 청소년기의 특성과 맞물려 반감이 표출되기도 함.
- 덧붙여 부모의 재혼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한 갖고 있음(석희정, 하춘광, 2015: 2-3).
-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족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이중, 삼중의 고난이 될 수 있음.

## 2) 중도입국학생 현황(8)

- **학교 차원**으로 보면, 학령기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국내 이주와 함께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데(이병철, 송다영, 2011), 학교생활에 있어 부적응(김민아 등, 2014; 남미연 등, 2020; 이유신 등, 2014)이 발생함.
- 학교 부적응의 원인은 교육과정, 교과과정의 단원구성, 학년별 영역별 내용 체계, 학습어휘 등의 차이 등이 제기되고 있음(남미연 등, 2020).
- 중도입국 학생은 학교진입의 어려움과 함께 학생에 대한 교사의 낮은 인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 학교의 협력적인 적응지원이 지적되었음(김민아 등, 2014).
- 비록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교에서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으나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함(이유신 등, 2014).

## 2) 중도입국학생 현황(9)

- **사회-문화 차원**의 적응이란 이주국의 문화를 학습하거나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것(김영순 등, 2012: 44)으로 이주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임.
- 특히 이는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상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이주국 언어의 유창성으로 추후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 밝혀진 바 있음(양계민, 조혜영, 2012: 198).
- 이런 맥락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예외일 수 없음.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 사례

### 1) 해외 사례와 시사점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사례

#### 1) 해외 사례와 시사점(1)

-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해외 다문화 학교 사례 연구를 위해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연구했음. 이를 통해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학교 혼자서는 이주배경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참여 증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끌어내고 있었음.

**독일:** 다문화 사회의 성공적 운영이 거주지 인근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경제, 노조, 종교단체, 재단, 협회 등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 강조(정수정, 류방란, 2012)하고 있음.

피어믹이나 JMD등의 프로그램에서도 이주배경 학생들의 사회통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학교 입학 전 보육시설, 네트워크 종사자 등도 이들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음.

학교 운영에서도 학부모와의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진행함.



## 1) 해외 사례와 시사점(2)

- **둘째**, 언어교육과는 별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이나 졸업시험 준비와 같은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함.

**프랑스**: 특별학급을 초·중고 단위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고등학교 과정의 특별학급은 고국에서 취학 경험이 없는 학생(미취학아동적응반)과 있는 학생(일반적응반)을 구분하여 운영됨.

각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수업 시간표가 편성되며, 특별학급 학생들이 일반학급에로의 빠른 동화와 적응을 도와주고 있음.

프랑스의 우선교육지대의 목표 중 하나로 진학지원을 꼽고 있음.

우선교육지대에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정학생을 위한 주요 정책은 진로교육임을 알 수 있다.

## 1) 해외 사례와 시사점(3)

**셋째**,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수업 시수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지원학급 사례에서 보듯, 교사들에게 다문화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있으며 방학 중 연수에 참여하도록 함.

**독일**: 지원 학급에 교사 2명을 배치하여, 교사가 업무 과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며, 프랑스는 학습 언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이 단지 특별학급의 교사나 특별학급을 맡은 프랑스어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니라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 전체의 책임으로 간주함.

따라서 프랑스어의 경우는 주당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주요 교과목으로 채워지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기타 교과목에서의 교육 내용이나 지침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들도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이 있음.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 사례

### 2) 국내 사례와 시사점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사례

### 2) 국내 사례와 시사점(1)

- 다문화대안학교만의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함.
- 서울 다솜관광고등학교는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직업교육을 특화함. 교육 과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어 이외의 과목을 축소하고 대안교과과목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실무적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 한국 폴리텍 다솜고등학교도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졸업 이후의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다문화대안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 수요자의 구체적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함.

## 2) 국내 사례와 시사점(2)

- 모국어 사용을 통한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강점을 개발할 수 있음. 한국어교육과 함께 학생 모국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현장, 교과 과정이 필요함. 모국어 사용은 이중언어 능력 개발과 함께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1)

-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적합한 학교의 기본적인 형태는 통합학교, 이중언어 및 다중문화 학교임.
- 아울러 적응의 정서적 지원을 하며, 진로와 관련한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학교임.
- 본 연구에서는 '베를린 국립유럽학교'와 국내의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운영사례를 도입함.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

#### (1) 베를린 국립유럽학교

(SESB: Staatliche Europa-Schule Berlin)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2)

#### (1) 베를린 국립유럽학교(SES: Staatliche Europa-Schule Berlin)

- 언어학습을 넘어서는 상호문화교육을 통해 독일 사회와 삶에 통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1992년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국립유럽학교가 설립되었음.
- 1992년 160명의 학생과 6개 초등학교 및 세 가지 이중언어(독일어-영어, 독일어-프랑스어, 독일어-러시아어) 수업으로 출발했으며, 현재 6,000명 이상의 학생과 베를린 17개 초등학교와 13개 중등학교가 있으며, 9가지 이중어(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터키어) 수업으로 실시되고 있음.
- 서로 다른 국가의 어린이들이 각기 다른 문화를 서로 배우고, 모국어 및 상대방 언어로 수업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이중문화 교육과 상호문화 교육을 동시에 추진함.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3)

#### (1) 베를린 국립유럽학교(SES: Staatliche Europa-Schule Berlin)

- 제공되는 언어적 다양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또한 초등교육부터 이중언어로 수업을 한다는 점에서 SESB는 독일의 일반학교 교육과 비교하여 독특하다고 볼 수 있음.
- 학급의 크기는 초등학교 준비반의 경우 16명,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24-26명, 그리고 중등학교에서는 최대 29명임.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4)

#### (1) 베를린 국립유럽학교(SES: Staatliche Europa-Schule Berlin)

- 제공되는 언어적 다양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또한 초등교육부터 이중언어로 수업을 한다는 점에서 SES는 독일의 일반학교 교육과 비교하여 독특하다고 볼 수 있음.
- 학급의 크기는 초등학교 준비반의 경우 16명,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24-26명, 그리고 중등학교에서는 최대 29명임.
- 학생들은 8학년이 끝날 때까지 여러 교과를 각각의 언어그룹으로 나누어 모국어와 상대방 언어로 수업을 하게 됨.
- 초등학교 준비반에서는 주로 놀이 및 창의적 활동을 통해 상대방 언어를 배우기 시작함.
- 1학년은 모국어수업 교육과정의 틀에서 각기 분리된 언어그룹으로 모국어 읽고 쓰기에 집중하고, 2학년 때부터 상대방 언어를 읽고 쓰는 수업이 진행됨.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5)

#### (1) 베를린 국립유럽학교(SES: Staatliche Europa-Schule Berlin)

-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사회 및 자연과학 교과에 해당하는 생활세계 수업이 독일어가 아닌 상대방 언어로만 진행되므로, 늦어도 3학년부서는 학생들이 각기 상대방 언어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름.
- 5-6학년 시기에 모국어와 상대방 언어로 말하기 및 글로 표현하는 지식을 확장하게 되며 지리, 생물, 역사는 독일어가 아닌 상대방 언어로 수업을 함.
- 늦어도 5학년부서는 제2외국어를 배우게 되며 상대방 언어가 영어인 SES에서는 프랑스어를, 그 밖의 상대방 언어를 지닌 SES에서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게 됨.
- 학생들은 8학년이 끝나면 학교가 제공하는 선택 필수 교과를 결정해서 9-10학년 동안 배워야 하며, 이러한 교과로 제3외국어, 사회과학 교과목 중 한 과목, 자연과학 교과목 중 한 과목 또는 음악이나 미술 가운데에서 선택하게 됨.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6)

#### (1) 베를린 국립유럽학교(SES: Staatliche Europa-Schule Berlin)

- 수업계획은 베를린 교육당국이 제시한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상대방 언어 국가의 커리큘럼을 참고함.
- 수학교과는 처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독일어로 수업을 하며, 음악·미술·체육·종교수업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수업으로만, 즉 독일어 또는 상대방 언어 중 어느 한 언어로만 진행함.
- SESB의 학생들은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주당 수업시간을 소화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상의 여러 교과목이 이중언어로 몰입수업을 하게 된다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베를린의 기간학제 틀 안에서 이루어짐.
- 따라서 유럽학교에서 다른 일반 공립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용이함.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7)

#### (1) 베를린 국립유럽학교(SES: Staatliche Europa-Schule Berlin)

-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다언어 구사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것임. 또한 두 가지 문화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SESB는 외국인 혐오에 대한 모든 행위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 모든 학급에는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학생들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평등하게 학습함. 여기에는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이 존재하지 않음.
-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SESB의 설립 이유이기 때문임.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

#### (2) 군서미래국제학교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8)

#### (2) 군서미래국제학교

- 2021년 3월 중학교 6학급, 150명으로 개교하였으며 2022년 고등학교, 2024년 초등학교로 순차적 개교 예정임. 학급규모는 총 24학급으로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이며, 학생 수는 급당 25명 내외 초등학교 300명, 중학교 150명, 고등학교 150명으로 총 600여 명.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8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어, 사회교과 수업 시간 50%를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함. 진학을 위해 별도의 검정고시를 응시할 필요 없음.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9)

#### (2) 군서미래국제학교

- 학생 모집은 시흥시 관내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 구분 없이 중국어권 2학급 50명, 러시아어권 1학급 25명, 한국어권 3학급 75명으로 총 150명을 모집함. 「교육특구법」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시흥, 안산지역을 바탕으로 시흥지역의 학생들을 우선 모집하고 모집정원 미달 시 2순위로 안산지역의 다문화가정 및 일반 학생들을 모집함. 시흥, 안산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권을 고려하여 중국 및 러시아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언어권을 포함하는 국제학교형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갈 예정임.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10)

#### (2) 군서미래국제학교

- 교직원 구성. 정규교과 교사 외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와 언어특성화를 위한 중국, 러시아어 강사, 학생들의 정서 심리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을 위한 진로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 언어를 도구로 활용하여 세계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만큼 현지 대사관을 통한 업무협약(MOU)체결 등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구축 계획을 가짐. 교장은 공모제를 통해 임명되며 교원 초빙, 장기 근무제를 도입함.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11)

#### (2) 군서미래국제학교

- 다문화가정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한국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국의 역사와 문학, 철학을 교육받음으로써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음. 한국인 학생은 체계적 수준별 맞춤형 언어교육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제교류 학습과 세계시민의식을 배울 수 있음. 외국어의 일상화를 통해 언어 및 문화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12)

#### (2) 군서미래국제학교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한국어, 영어, 모국어와 다중언어를 수준에 따라 학습하며 역사, 세계사, 문학, 예술 교육으로 세계 시민성을 기르며 학생이 스스로 설계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프로젝트로 진행함.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다중언어교육(모든 학생이 3개 국어 이상 구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생주도교육, 무학년제·학점제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특화 교육이 특징임. 출신 언어별, 수준별로 학습집단을 구성하며 학습시간은 개별학습과 공동체 학습시간을 편성, 블록타임 등 다양하게 편성함.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 사례

### 3)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우수 학교 사례(13)

#### (2) 군서미래국제학교

- 온, 오프라인(블렌디드 러닝) 토론학습. 중국, 러시아 대사관 협약(MOU)을 통한 현지 교사 온라인 강의를 병행함. 교사는 온라인 학습설계 코치, 학습상담자, 에듀테크 수업플랫폼 운영자 역할을 함.
- 외국어 이외에 수학, 과학 등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은 자기학습 설계 시간을 활용하여 융복합 수학 및 과학 교과를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 대학 연계 동아리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융복합 수학, 과학수업 가능)

## 4. 맺음말



## 4. 맺음말

---

- 원론적으로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
- 그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학교는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이며, SDGs의 교육 목표에도 합리적이지 못함.
- 학교는 특정한 '누구'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학교여야 한다는 이야기임.
- 누구를 위한 학교가 자칫 해단 사회에서 낙인을 찍는 대상의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4. 맺음말

---

- 실제로 김영순(2017)에서는 베넷과 벅크스 등의 다문화학교 개념과 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베넷(Bennett, 2001)은 '통합된 학교'개념을 통해 다원주의적 특성이 강할수록 민족 및 인종 간의 상호신뢰적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자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며, 학습자 개인의 발달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음.
- 아울러 다문화학교에서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 인종 간의 긍정적인 접촉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봄.

## 4. 맺음말

---

- 나아가 베넷은 다문화학교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함.  
접촉은 집단 간 이해의 호혜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친밀한 것이어야 함.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접촉 상황은 사람들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함.  
또한 제도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4. 맺음말

---

- 베넷이 다문화학교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뱅크스는 다문화학교 구성원의 인식 및 태도, 교육과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음.
- 대부분의 다문화교육학자들이 구상하는 다문화학교는 분리형 학교가 아닌 통합형 학교이며, 구성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학교임.
- 또한 학교장, 교사 및 교직원들은 학습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같은 인식 및 태도를 갖추어야 함.

## 4. 맺음말

-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한국의 다문화학교는 현재를 성찰하고 혁신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임.
- 중도입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학교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첫째**, 단일한 민족성으로 구성된 일반 학교의 다문화교육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함.
  - 둘째**, 체계적인 언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육, 다중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문화다양성 교육을 선도할 우수한 교직원 확보하고, 구성원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성 개선하기 위한 교사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넷째**, 학생들이 외국 대학 유학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함. 교육 당국에서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과 학력 인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학부모들의 활발한 학교 운영 참여와 이주민 연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전위원회 구성 등의 지역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교육부(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2020. 8. 28.
- 김민아·이재희·라미영·김기현(2014).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 어려움에 관한 연구, 21(9), 147-175.
- 김보미·이정미(2019). 탈북청소년 연구의 20년 동향분석: 1999-2018년 연구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1265-1289.
- 김송설(2019). 중도입국학생의 언어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다문화연구소, 다문사회와교육연구, 40, 37-66.
- 김영순·박봉수·팜티헨짱(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중심 재사회화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언어와 문화, 8(3), 37-63.
- 김은경·김현주(2017).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동향: 국내 및 북미학술지게재논문분석(2003-2015),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8(2), 245-270.
- 남미연, 오현주, 최광선(2020). 중도입국 학생의 학습부적응 원인 분석-한중 초등수학 교육과정 비교중심으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다문화교육연구, 13(2), 21-55.
- 남부현·김경준(2018). 중도입국청소년초기적응과정에 관한 조선족 부모의 경험 인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29(2), 5-34.

## 참고문헌

- 박봉수(2013).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한국 사회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봉수·김영순·최승은(2013).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부모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21(2), 331-355.
- 박병금(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 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371-381.
- 박성욱(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프로그램운영실태 사례 및 발전방안연구,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다문화교육연구, 9(3), 83-105.
- 박언하(2019).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연구 동향분석(2010~2019),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10(2), 399-414.
- 박언하(2020). 탈북 청소년 적응 관련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50, 53-73.
- 박옥현(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관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2011).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문화, 1(2), 113-139.
- 법무부(2020). 2019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보도자료, 법무부(2019. 11. 25.).

## 참고문헌

- 석희정·하춘광(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31(0), 1-35.
- 신명화·강소연·김은경·김정민·노원경·박성은·서은희·원영실·황은영(2011).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영권(2014). 논문: 중도입국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언어재료 연구, 국제한국교육학회, 한국어교육, 25(3), 186-206.
- 엄명용(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2(0), 39-82.
- 양계민·조혜영(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양미진·고홍월·김영화·이동훈(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3), 87-113.
- 오승환·좌현숙(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학교사회복지, 32(0), 385-412.
- 오영훈, 김영순(2016). 다문화대안학교의 실천과 모색. 성남: 북코리아.
- 윤갑정·손환희(2018).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분석, 문화예술과교육연구, 13(3), 81-109.

## 참고문헌

- 윙티탄프영·김기화(2018).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7(4), 79-102.
- 이병철·송다영(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이유신·김한성(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0), 263-282.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0).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자료마당, 개념/검색일: 2020. 9. 26. < <http://www.rainbowyouth.or.kr/page/page24> >
- 임선일, 오영훈, 조인제(2018). 다문화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문화교육, 7(1), 5-31.
- 정세진·윤혜미·정다영·박설희(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연구. - 개인, 가족, 다문화배경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4(0), 23-50.
- 정수정, 류방란(2012). 독일의 이주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비교교육연구, 22(2), 47-77.
- 정하은(2015).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연구의 동향분석: 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2001-2014), 다문화가족, 10, 41-65



## 참고문헌

- 최영미·송영호(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초국가적 가족 관계 및 새로운 관계구성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경기 연구원, GRI 연구논총, 72(4), 189-214.
- 황매향·고홍월·김진영(2010). 초등교사의 다문화가정 아동지도경험, 아시아교육연구, 11(1), 147-167.
- Bennett, M. (2001). Genres of Research in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2(2), 171-217.
- Banks, J. A. (2006). Race, Culture, and Education: The selected works of Jamse A.Banks. London, UK & New York, NY: Routledge.
- 吉田美穂(2015). 第 2 部 基調講演 『外国人児童生徒の高校進学問題と高校入学後の学習支援』. HANDS next, (19), 4-5.
-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ds.sen.hs.kr>
- AC아시아공동체학교 <http://ac-school.net/>

## 감사합니다 ☺





04

2021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사례발표

---

**구로혁신교육지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사례**

---

**유현경**  
구로온마을교육지원센터장

구로혁신교육지구 온마을교육 G+O 구로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구로혁신교육지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사례


구로 온마을교육지원센터장  
유현경



G+O 2019 구로혁신교육지구 온마을교육 G+O 구로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

마을 = 삶과 배움, 관계의 공간



## 구로혁신교육지구 시작의 고민!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구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과 배움의 주체로 서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G+O 2019 구로혁신교육지구  G+O 구로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비전 : 더불어 숲이되는 ON마을 교육공동체

소통의 공동체, 협력의 공동체, 성장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ON마을 교육공동체"**





**2021구로혁신교육지구 비전 : 더불어 숲이되는 ON마을 교육공동체**

ON마을 주인공! 어린이 청소년	구로 ON마을 교육과정	배움과 심을 위한 ON마을교육공동체	ON마을 교육생태계 조성
구로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어린이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b>ON마을 교육과정 개발·운영</b>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학교마을 연계 협력교사제 더불어교실 마을과 함께 하는 동아리 구로 ON마을 틈새교육 (작업장학교, 전환기수업)	구로마을학교 ON마을 학습공동체 ON마을 어지트 ON마을 교육대학 ON마을 성장하는 학부모 이루어져라 압! 성장하는 마을	거버넌스 도약과 내일 동단위 교육 거버넌스 혁신교육지구 성과 관리 구로온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 구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체계

- 온마을교육회의 : 구로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총회
- 온마을교육 운영위원회 : 구로혁신교육지구 심의 및 의결 기구
- 온마을교육 실무지원단 : 분과 대표 중심의 민관학 거버넌스 실행 체계
- 분과 :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자 중심의 논의 기구
- 온마을교육지원센터 : 민관학 거버넌스 사업 집행체



## 마을교육의 세가지 형태

**마을을 통한 교육** : 그 지역사회의 인적, 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자원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과 배움의 실천을 의미함

**마을에 관한 교육** :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산업적 특수성 및 발전성에 대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함

**마을을 위한 교육** :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진로 역량을 키워주는 활동.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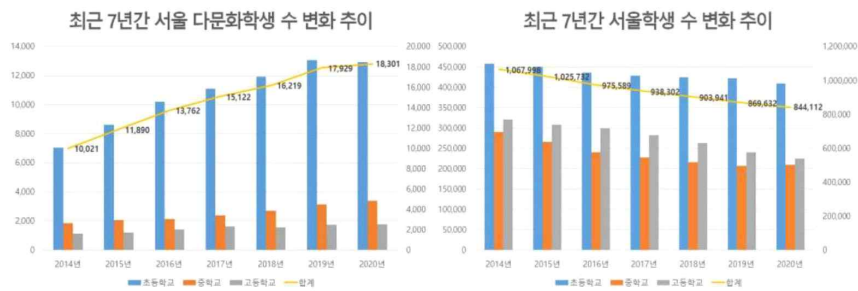
마을에서 교육의 주체들 모두 삶과 배움을 만들어 가는 **마을교육공동체**



## 구로혁신교육지구 마을을 통한 교육

- 초1,2 안전수업 (4대 안전교육) : 초 1-2
- 문예체 협력교사(연극, 뮤지컬, 악기, 무용 등): 초, 중
- 구로 지역 알기 수업(우리동네 보물찾기, 마을기록학교): 초, 중
- 작업장학교(목공, 생태, 요리, 공예 등): 초, 중
- 다문화 세계시민교 : 중 2  
 (문화다양성과 이주민 권리, 노동인권, 장애인인권, 성평등, 공정무역, 기후위기, 청소년참정권, 화해와 평화)
- 자유학년제 꿈찾기 인생수업, (17차시 :나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관계, 진로탐색) :중1
- 청소년참정권 교육 : 중, 고
- 더불어 교실(프로젝트형 창체, 마을과 함께하는 자유학년제 연계 수업,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 초, 중, 고
- 마을학교(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 원격학습지원 마을학교 등),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등

## 다문화학생 현황



※ 다문화학생 중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수: ('14) 3,214명 → ('20) 7,373명

최근 7년간 총 8,280명(연평균 1,183명)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학생 대비 2.17%(18,301명)

## 서울 다문화 학생 현황

### 학교별 다문화학생 수

(단위: 명, 기준: 매년 4.1.)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	전체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비율 (%)
초등학교	424,800	11,940	2.81	422,293	13,067	3.09	409,594	12,938	3.16
중학교	216,330	2,701	1.25	207,413	3,128	1.51	209,809	3,401	1.62
고등학교(각종)	262,811	1,578	0.60	239,926	1,734	0.72	224,709	1,962	0.87
<b>계</b>	<b>903,941</b>	<b>16,219</b>	<b>1.78</b>	<b>869,632</b>	<b>17,929</b>	<b>2.06</b>	<b>844,112</b>	<b>18,301</b>	<b>2.17</b>

### 교육지원청별 다문화학생 수 [소속재학생 대비]

(단위: 명, 기준: '20 4.1.)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계
다문화 학생수	1,470	1,809	4,940	1,111	1,474	1,258	1,591	550	1,629	1,245	1,224	18,301
전체 학생수	53,886	95,787	77,937	89,771	47,555	105,138	104,112	103,893	60,270	50,378	59,792	848,519
비율(%)	2.73	1.89	6.34	1.24	3.10	1.20	1.53	0.53	2.70	2.47	2.05	2.16

출처 : 서울시교육청 2021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자료

## 구로구 외국인 주민 현황

### 1. 구로구 외국인주민 현황

1. 총 관(계: 54,937명 - 남 28,740명 / 여 26,197명) | (단위: 명)

인구수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비율	국적 미 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소계	국적취득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435,560	54,937	12.6%	14,085	3,224	502	14,836	13,389	46,036	6,532	2,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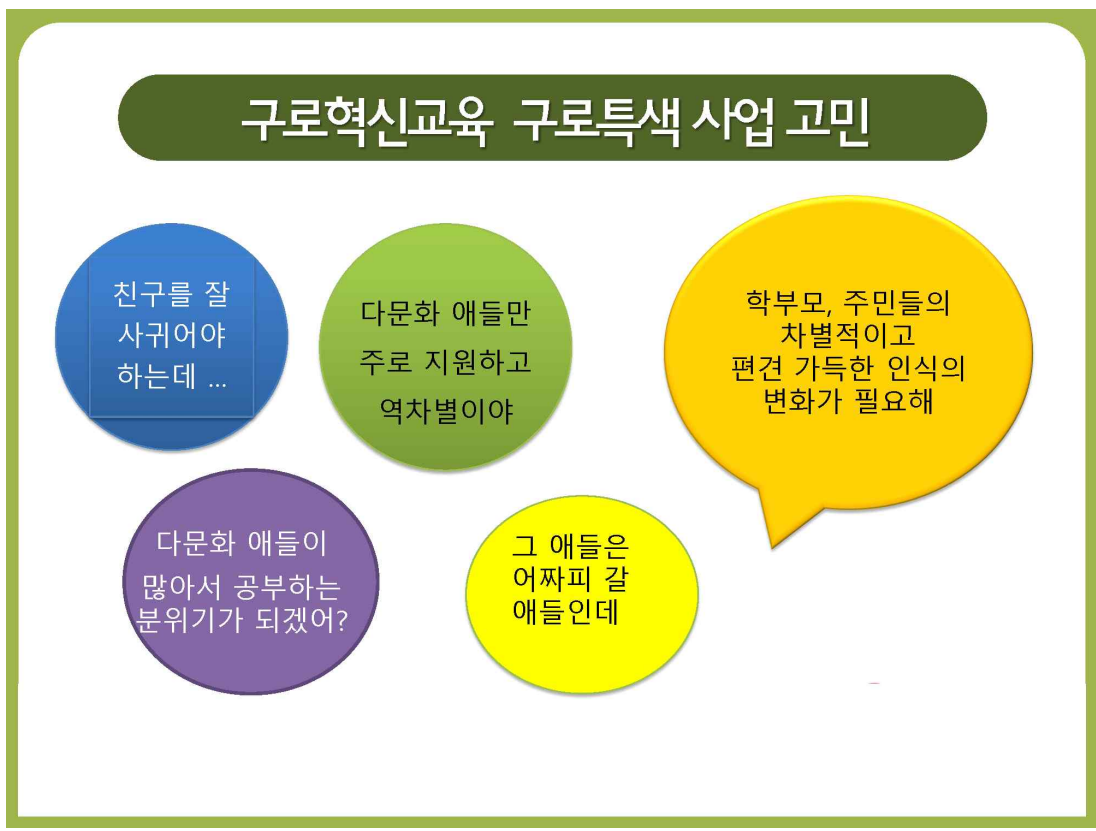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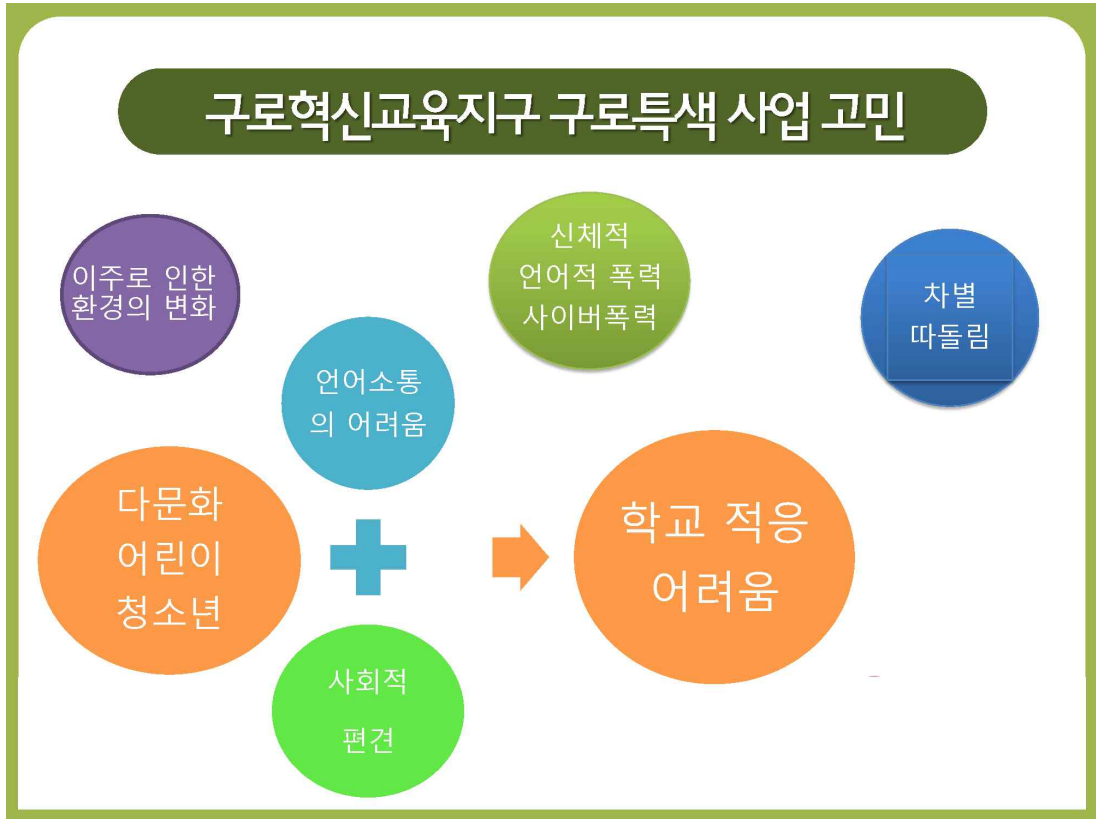
## 구로구 다문화인구 현황

(2019. 11.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2020. 10. 28. 행정안전부 공표)

구분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한국국적을취득한자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구로구	46,036	25,097	20,939	6,532	2,456	4,076
0~9세	1,921	973	948	174	80	94
10~19세	860	431	429	267	115	152
20~29세	4,292	2,101	2,191	344	127	217
30~39세	8,432	4,705	3,727	1,075	356	719
40~49세	8,355	5,132	3,223	1,510	580	930
50~59세	12,712	7,064	5,648	1,708	684	1,024
60~69세	7,938	4,163	3,775	1,132	433	699
70세이상	1,526	528	998	322	81	241

## 구로혁신교육지구 구로특색 사업 고민

- 구로구 외국인주민 수 지속 상승세
- 다양한 국적·유형의 외국인 주민 공존
- 다문화수용성의 증가와 동시에 이주민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지하는 현상 역시 증가하는 양상
-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상호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이주민에 대한 "가난한 노동자", "불법체류자"라는 편견과 차별적 시선 발생
- 한국어교육 없이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 및 학교생활 부적응, 부모와의 갈등, 고립감 등의 어려움을 겪음
-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재학생과의 갈등, 학교 부적응, 교사들의 학업지도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혼재



## 구로혁신교육 다문화 어울림 사업(2017-18)

### 1) 다문화학생지원 통합지원체계 구축회의

- 대 상 : 구로 관내 초, 중학교 다문화학생 담당 교사 및 부장참여(참여기관 7개기관, 참여학교 16개교)
- 내 용 :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지역자원조사 활동 및 자료집 작성

### 2) 다문화학생 초기 적응지원 어울림멘토링

- 중도입국다문화학생 13명 초기적응지원을 위한 1:1 멘토링 연계(멘토링 총 200회 평균 15회 진행)
- 중도입국다문화학생 초기 적응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멘토 양성, 정기슈퍼비전, 멘토링 매뉴얼 제작 등)

## 구로혁신교육 다문화 어울림 사업(2017-18)

### 3) 다문화 역사문화 동아리 '어울렁더울렁'

- 사업내용 :
  - 선주민학생-다문화학생이 함께하는 다문화 역사문화 동아리 각 10회기씩 총 40회 진행

### 4) 다문화 교육현황 실태조사

- 사업 시기 : 2018. 5.~ 12.
- 사업내용 :
  - 구로지역 다문화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실태, 구로지역아동 다문화감수성 실태, 다문화교육을 위한 정책제언 등

## 구로혁신교육 다문화 어울림 사업(2017-18)

### 4. 다문화 직무연수(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구로중 공동사업)

- 사업 시기 : 2018. 10.~ 11.
- 사업내용 :
  - 다름에서 배우다 직무연수 15시간 운영
  - 대상 : 교사, 구청공무원, 마을교육활동 등

### 5. 다문화 문화감수성 인사이드 교육

- 사업 시기 : 2018. 10.~ 12.
- 사업내용 :
  - 대상 :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3개교의 6학년, 학급별 수업 진행
  - 내용 : 창체시간을 활용한 다문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 구로혁신교육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2019년)

###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 대상: 다문화학생(10%이상) 밀집학교, 희망학교
- 사업내용: 학교-마을 연계 다문화이해(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교육) 교육과정 개발 (교사, 마을교사,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개발팀 운영)
  - 2019년 구로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마을 연계 다문화이해교육 모델을 평가정리 구로형 다문화-세계시민 학교마을연계모델로 정리
  - 2019년 구로중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지속  
(구로구청 온마을교육지원센터, 구로문화재단, 구로학교인문사회적협동조합, 구로장애인자립지원센터, 여성환경연대, 남서지부, 더초록, 구로구근로복지센터, 이주민단체친구, 구로중학교 다문화교육연구모임)
  - 학교-마을연계 다문화 이해 교육을 창체, 학기말(1학기, 2학기)
  - 전환기 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 예정(3-4개 학교 1개 학년 지원)



## 학교-마을 연계 구로중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 학교-마을연계 다문화 이해 창체 수업 (1학기, 2학기)

-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과정 구성 협의회 운영  
: 매주 월요일 학교 교사와 마을 교육기관, 온마을교육지원센터 등이 모여서 협의회 진행  
: 학교 다문화 학생 현황, 필요한 교육에 대한 토론 등 학습 및 협의 진행
- 1학기 창체 : 마을교사와 함께 하는 주제 수업  
(성평등, 장애인인권, 이주민인권, 노동인권, 연대와 실천 등)
- 2학기 창체 : 각 창체 담당선생님이 다문화 주제를 같이 연구하여 공동 수업안을 작성하여 수업 진행. (ex : 나, 정체성, 인권 등)
- 7월 다문화교육주간 행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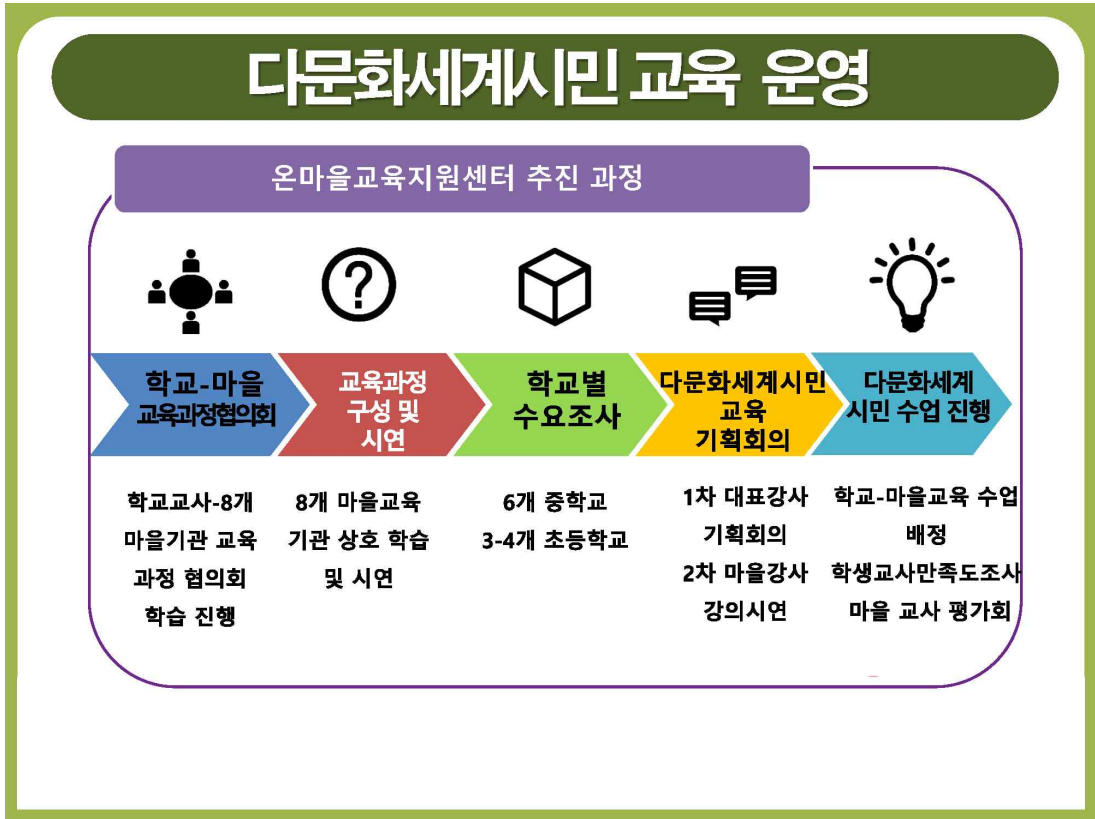
## 구로혁신교육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2020~2021

### ▣ 추진배경

○ 다문화세계화 사회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중학교 3~6개교 2학년 전학급 운영
- 지원사항 : 구로혁신교육 다문화, 세계시민교육과정 제공(강사비, 재료비 등)
- 운영내용 :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창체, 교과 연계하여 4-8회차 수업



## 구로혁신교육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2020~

구 분	교육 신청 분야 및 내용	교육 진행기관
<b>세계시민 이해교육</b>	<b>세계시민 이해</b> (세계시민 왜 되어야 할까)	※공통교안을 주제별 교육기관이 주제별 교육과 이해교육 병행하여 진행
<b>세계시민 주제별 교육</b>  <small>선택 차시 마지막 주제별 교육은 연대와 실천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운영</small>	<b>문화다양성과 존중</b> - 이주민, 난민의 권리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b>불평등과 정의</b> - 공정무역, 공정여행	구로아이쿱 생협
	<b>지속가능한 환경</b> - 청소년 기후 행동	여성환경연대 더초록
	<b>인권과 차별 없는 사회</b> - 성인권	구로학교안전사회적협동조합
	<b>인권과 차별 없는 사회</b> - 장애인 인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b>세계시민, 노동의 권리</b> - 청소년노동인권	구로노동자종합지원센터
	<b>세계시민, 청소년, 권리를 외치다</b> - 청소년참정권	교육플랫폼 Be.Do.
	<b>화해와 평화</b> - 일본군위안부 역사 바로 알기	구로여성회



## 학교마을연계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추진과정

◎ 다문화-세계시민  
 교육과정 협의회  
 구성(2020년4월~12월)

- 협의회 구성 : 온마을교육지원센터, 8개  
 마을교육기관, 신청 학교  
 - 월 1회 교육과정 협의회 운영

↓

◎ 다문화-세계시민  
 교육 과정 운영  
 (2020년 4월~12월)

- 학교 안내 및 신청 접수 (4월)  
 - 신청 학교 교육과정 협의회 (5월~9월 중)  
 - 다문화-세계시민 교육과정 운영(5월~12월)

↓

◎ 교육과정 운영 평  
 가 (2020년 12월)

- 세계시민교육 운영 평가  
 - 2021년 사업계획 수립

↓

◎ 설명회(2021년  
 1월)

- '더불어 사는 다문화-세계시민 교육과정' 설명회 -  
 수요조사

## 구로혁신교육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운영현황

년도	신청학교	총운영 시수	협의회 운영	비고
2019	중 3개교	104	14회	시범운영(3개교) 구로청소년축제 세계시민퍼레이드 연계(12개교, 14개 댄싱팀)
2020	중 6개교	135	8회	코로나19로 2개교 취소 4개분야 동영상제작, 학교지원
2021	중 5개교, 초 3개교		운영중	-

## 구로혁신교육 청소년 축제 세계시민교육

□ 2019년 세계시민 퍼레이드 참가 및 교육 신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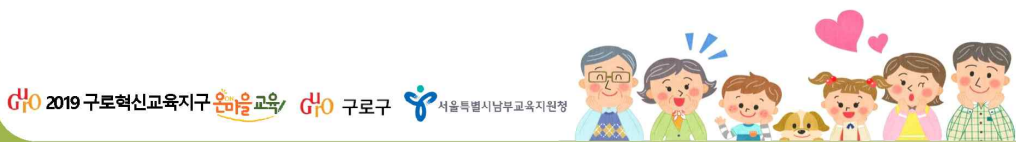
1. 참가신청단위 : 학급별, 학생회별, 동아리별, 개인연합
2. 교육희망시간 : 정규수업, 창체, 교과, 방과후, 자율(주말)
3. 축제참여방법
  - 공연(댄싱쇼, 뮤지컬, 대취타 등)
  - 세계시민 퍼레이드
  - 세계시민 캠페인 청소년자율부스운영
  - 봉사활동



## 학부모와마을,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계시민퍼레이드

### ● 세계시민 퍼레이드 마을 워크샵

- 퍼레이드 참여하고 싶은 가족, 주민모임, 동호회 등의 신청을 받아 세계시민 주제 교육을 받고 이를 퍼레이드 캠페인으로 만들어 가는 워크샵
- 세계시민 주제별 이슈(인권, 환경, 노동, 불평등과 정의, 문화 다양성과 이주민, 화해와 평화 등), 2019년 구로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기
- 모집대상 : 다양한 세계시민 이슈로 생각을 공유하며 퍼레이드를 만들어갈 구로구민 100명
- 퍼레이드 마을워크샵 참가자 모집기간 : 8월 16일(금) ~ 8월 30일(금) 예정
- 참여방법 : 구글 신청서 제출,
- 퍼레이드 재료비 지급, 세계시민 교육 지원



## 학부모와마을, 청소년이 함께하는 캠페인 놀이터

### ● 온마을 파라솔 부스

#### - 캠페인놀이터 내용

세계시민 주제별 이슈(인권, 환경, 노동, 불평등과 정의, 문화 다양성과 이주민, 화해와 평화 등)와 2019년 오늘을 사는 청소년,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이야기 등

- 모집대상 : 다양한 세계시민 이슈로 생각을 공유하며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갈 마을기관과 청소년 기관 30개 팀

- 참여방법 : 구글 신청서 제출, 심사를 통해 최종 참가팀 선정



### ● 부스설치 : 30팀 (선착순 마감 예정)

### ● 운영비 지원- 파라솔 부스 (파라솔 1-2개, 의자 1-2개)



2019 구로혁신교육지구 구로구 서울특별시



## 다문화 세계시민 교육, 세계시민 퍼레이드

다문화와 이주민, 기후 생태, 공정무역, 성평등, 장애인인권 등 시민으로서 고민해야 할 다양한 내용을 함께 배우고 마을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퍼레이드를 통해 실천과 연대의 장에 참여





## 구로 청소년 길놀이축제(세계시민 퍼레이드)

구분	상징깃발	구분	상징깃발
1대열 검정 우리는 세계시민		6대열 노랑 성평등	
2대열 살구 문화다양성		7대열 빨강 청소년 참정권	
3대열 초록 공정경제		8대열 파랑 기후와 환경	
4대열 형광연두 장애인 인권		9대열 흰색 화해와 평화	
5대열 회색 청소년 노동인권		*올해는 탈은 전시회(포토존)로 변경 	



## 교육과정 협의회와 수업준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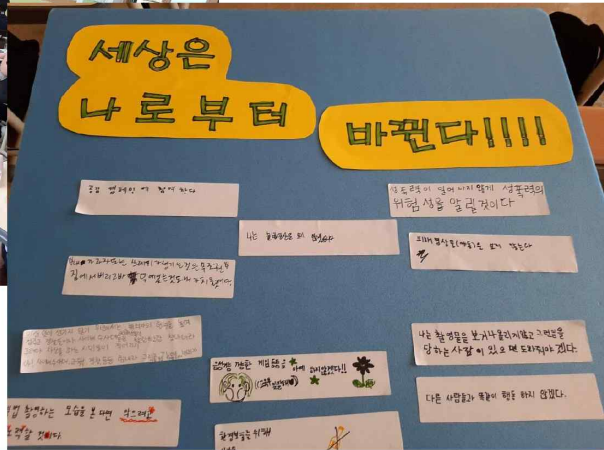


## 학교-마을 연계 다문화세계시민 수업





## 학교-마을 연계 다문화세계시민 수업



## 구로혁신교육 다문화 세계시민 교육 사업 고민

- 다문화 교육 관련한 네트워크와 다문화 어린이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필요
- 소수학생 중심의 지원책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
- 동화주의적 태도와 교육을 넘어서는게 필요
- 선주민, 이주민 구분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통합 교육 기회의 제공
- 권리와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감수성,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이 인정되고 차이가 힘이 되는 교육
-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연대와 실천적 방안 필요

-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를 초·중·고 모두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학교문화 전반에 반영하는 학교는 많지 않음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다문화세계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사례 공유 필요
- 마을은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연대 사례를 통해 학교와 마을에서 체험 및 활동과 결합한 다양한 교육 방식 연계 필요
- 학교와 마을의 지속적인 다문화세계시민 교육과정 협의 및 수업 모델 연구 필요
-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마을속 다문화세계시민 학교, 학부모와 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체험 마련 필요
- 초·중·고, 이주배경 학생 대상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 등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세계시민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마련
- 지속적인 학교-마을 연계와 교육을 위한 예산 및 지원 시스템 필요







05

2021 다(多)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주제토론

##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

신혜영(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거주 외국인주민이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적 접근성으로 영등포, 구로, 강서, 관악 등 서남권 지역에서 생활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센터 이용률이 높다. 이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70%이다.

서울 시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중도입국학생들의 재학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 대안학교가 세워질 만도 한데, 다문화교육학자들이 지향하는 것처럼 통합형 학교로 운영되며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하다.

또한 지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들과의 연계가 활발하기 때문에 학교 또는 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노력과는 별개로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센터에 문의하는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학교 입학, 적응, 진로 관련이다. 청소년기에 입국하는 중도입국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고 진로 설계를 하는 단계까지 부모나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학교 안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해 센터로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센터도 통합형 교육을 지향하지만, 위와 같은 상담 비중, 부모, 학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육청을 통해 관련 학교들을 연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한빛마중교실, 예비학교와 7개의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부모님과의 상담 후에 교육청을 연계하여 바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일정 수준의 한국어 교육을 받은 후에 교육청을 통해 위의 학교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급적 교육청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센터는 사각지대의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반학교 현장에서의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 점점 다양해지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다양한 체류, 가족 상황 등을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해 센터로 연결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학교 공부를 따라가게 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정서, 지적/발달 장애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중도입국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학교 현장에서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발표문에서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다문화학교 해외 사례를 통해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은 중도입국학생 지원 현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다만, 지역이 얼마나 긴밀히 연대하고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 밖에 발표문에서 언급한 해외 사례는 우리가 중도입국 학생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많다.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는 좋은 해외 사례처럼 유사한 교육 방향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 받았어도 입시, 취업, 학교 평가 등에 영향을 받아 교육 취지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다.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가 개교하고, 부산아시아공동체학교가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된지 10년 정도 되었다. 발제자의 말처럼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 방향들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좀 더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에 있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여전히 집안에 있는 학생들이 공교육에 들어가거나 다른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해야 한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주저하는 한국어, 본국 서류 미비, 차별과 같은 인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교육, 안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발표자의 맺음말에 좀더 현장의 이야기로 첨언을 하면, 일반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의무가 아닌 실효성 있는 다문화 교육으로 진행되도록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며, 다문화학교를 확대하기보다는 일반학교에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보듬을 수 있는 교육과정들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언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예비학교, 대안학교, 특별학급 등이 지역별로 확대되어야 하며, 교사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부모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와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와 지역 유관기관들의 실효성 있는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

발표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 그들만을 위한, 낙인을 찍는 대상의 학교가 아닌 우리 중도입국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학교가 되도록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의 방향

문민(중국동포대림·국제학원장)

### 1. 발제문 요지

#### ○ 중도입국학생 개념

출입국과 가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측면에서 개념화  
이주배경청소년 = 다문화가족 청소년 + 중도입국 청소년

#### ○ 중도입국학생 현황

출입국과 교육부의 자료에 근거하여 통계 서로 다름.  
교육부의 통계는 중도입국학생을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한정 9151명(2020현재)  
교육부 통계의 한계: 재학생만 통계에 잡히고 진학 대기자 혹은 중퇴자는 제외.  
\*외국인가정에도 중도입국 자녀가 있을 수 있다.

#### ○ 중도입국학생의 학교 사례

국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 선진국 사례에 국한됨.  
\*중도입국학생들의 출신국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부산아시아공동체학교,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군서미래국제학교(우수사례, 국어와 사회 50%)

#### ○ 학교 운영 방향: 통합교육(베닛과 벅크스 이론)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의 발전 방안

- 차별화된 교육과정
- 이중언어교육, 다중문화교육
- 구성원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성
- 교육 당국에서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과 학력 인정 프로그램
- 부모들의 활발한 학교 운영 참여와 이주민 연대, 지역네트워크

### 2. 중도입국학생 사례

중도입국학생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론과 현장은 언제나

과리가 있는 법이다. 중도입국학생 교육을 학교 밖에서 8년째 해오면서 지금까지 100여명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중도에 입국한 인원이 많지만 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중도에 입국한 경우에 비해 빨리 적응하는 편이다. 아래는 입국초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부터 고등학교 사례이다. 이들은 다양한 학교에 입학하여 적응하고 있다. 먼저 5명의 중도입국 학생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구분	입국초기	현재	적응 과정
사례①	초등학교 5학년	중1	- 이중언어 가능한 교사가 있음 - 한국어 습득이 빠름
사례②	초등학교 졸업	중2	-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되면서 1년 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함
사례③	초등학교 졸업	중3	- 화교 학교에서 한국학교 전학 희망
사례④	고등학교 중퇴	대학생	- 한국어만 배우다가 특성화고 입학 - 내신관리를 통한 서울 명문대 진학
사례⑤	고등학교 2학년	대학생	- 단기간 한국어 실력 향상 - 대학 진학 용이

사례① - 다문화교실이 있는 일반 중학교

한국학교에 대해 호의(好意)가 있는 학생이다. 중국의 과중한 학업부담에 비해 한국 학교는 숙제가 적은 것에 아주 신기해한다.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체벌 경험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오니 교사들이 한결같이 친절하다고 한다. 5학년 때 중도 입국했는데 배정된 학교에 중국어를 하는 교사도 있고 중국어 수업이 있는 것을 자랑하였다. 현재 다니는 중학교 다문화교실이 있다. 매일 정규 수업 외 1시간씩 다문화교실에서 보충수업을 받는다.

사례② - 다문화 교실이 없는 일반 중학교

해당 학생은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19년 7월에 한국에 왔다. 여름 방학에 잠깐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서도 중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이 쉽지 않았다. 마침 한국은 3월에 개학이니 2020년 2월까지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한편 계속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이 와중에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외국인등록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결국 3월에 정상 입학할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8월에 편입학 했고 현재 중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다. 1년 동안 학교 밖 생활하면서 학생의 학습의욕이 많이 떨어졌다. 현재 다니는 학교에 이중언어 교사가 없다. 같은 반에 비슷한 처지의 학생도 없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는 어렵다.

#### 사례③ - 화교학교

한국에 오기 전 중국의 대도시에서 살았다. 가족 모두 한국에 이민 왔다. 오빠는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사례3은 화교 중학교에 진학했다. 최근에는 한국어를 잘 못해도 한국 일반학교에 진학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화교학교에서는 1등, 2등을 하는 상위권 학생이다. 한국 학교에 진학했을 때 성적이 떨어질까 봐 전학을 고민하고 있다.

#### 사례④ - 특성화고등학교

중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 부모가 살고 있는 한국으로 왔다. 한국에 와도 고등학교 다닐 생각은 없었다. 다만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언어를 먼저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학교에 대한 상황도 알게 되고 한국어 선생님의 권유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학교에서 학급생보다 2살 많다 보니 공부를 잘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학교 교과 수업 외에도 대학전공 탐색을 꾸준히 하였다. 사진작가를 희망하는 이 학생은 주말마다 야외에 나가 사진을 찍는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의 명문대에서 사진학을 전공하고 있다.

#### 사례⑤ - 일반고등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 대학으로 유학 오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은 조기에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 서울의 일반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하였는데 여타 교과 성적은 중국에 공부할 때 비해 볼품없이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어 성적은 4개월 만에 5급을 취득하였다. 이 학생의 경우 수능을 보지 않아도 대학진학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위의 다섯 개 사례 중 사례③만 제외하고 모두 분리형이 아닌 통합모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사례3은 화교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실제로 아직 한국의 교육제도에 편입되었다 보기 어렵다. 다년간 중도입국학생들의 학교 선택과 학교 적응 과정을 지켜

보면서 입국초기 잠깐 개별교육이 필요하지만 결코 분리형 학교를 원하지 않는다. 중도입국학생들은 통합교육을 희망하며 어렵지만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3. 토론과 질문

중도입국학생들은 한국 입국 전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 국경을 넘으면서 새로운 각오가 형성된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매사에 주체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이사를 하는 학부모, 자녀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국제학교를 보내기 위해 거액의 학비도 감수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현재 중도입국학생들은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학교의 기준은 통합, 이중언어, 다중문화 교육이라고 한다. 여기서 통합이란 학생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일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 출신 구분 없이, 한국의 일반교육 과정에 따른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발표문에서 제시한 3개의 학교 -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부산아시아공동체학교,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모두 분리형 운영방식이다. 이런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교과과정에 일반학교에 없는 한국어 비중이 크다. 기술교육도 있어 특성화고등학교 특징도 있다. 중국 출신 중도입국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발제자가 분리형 학교의 대안으로 우수학교 사례를 제시했다. 발제자가 제시한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설립 1년 미만인 학교다. 학교를 더 잘 알아보려고 홈페이지 방문했는데 교육의 목표도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발제자가 이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모집 대상 1순위가 지역 내 일반 학생? 한국의 일반 학생과 중도입국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외국어고등학교, 국제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주민들은 특정 지역이 모여 살고 있다. 서울의 경우 -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지역에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대부분의 중도입국학생들은 이 지역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중도입국학생들이 유난히 많은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도입국학생들은 다문화교실을 잘 활용하는 편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학생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후 아예 학교에 전학하지 않았거나 학교 다니다 중퇴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논의가 있길 바란다.

## 중국 동포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중간 요약

김유나(존스홉킨스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 1. 배경 및 방법

중국 동포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이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2021년 연말까지 수행하고 있는 질적 연구 중에서 지금까지 참여한 12명의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별 인터뷰 내용을 중간 요약하였다. 참여한 청소년의 입국 시기는 7세부터 22세까지 다양하였으며, 그 중 반 (6명)이 여성 청소년이었다. 인터뷰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이 부모님의 이주부터 자신의 이주, 이주 후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질문하였다. 중간 요약을 위해 프레임워크 분석 (framework analysis)을 수행하였고, 분석 결과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2. 주요 주제

#### 주제 1. 입국 계기와 유학생 정체성

입국 당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의 경제적 이유나 돌봄 상황을 고려한 부모님의 결정으로 입국하게 된 청소년이 많았으며, 입국 당시 나이가 16세 이상인 경우 자신이 스스로 한국에 오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스스로 먼저 한국에 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이유가 가장 컸고, 그 외에도 더 좋은 교육 환경, 새로운 나라에 가고 싶은 호기심, 그리고 한국 문화의 유행이 있었다. 스스로 선택해서 온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서의 교육이 이주의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입국 계기가 수동적이었던 청소년들도 입국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두 명을 제외하고, 자신들을 한국에 사는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은 외국인 유학생인데,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서 대학 입시 때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자신을 유학생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학업을 마친 후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 주제 2. 한국어와 친구 사귀기

참여한 청소년 중에서 중국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다가 입국한 청소년은 소수였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입국하였고, 초반에 다문화 학교나 센터를 통해 기초 한국어 수업을 받았다. 일반 학교에 진학하기 전 청소년들이 받은 한국어 교육의 기간은 한달에서 6개월까지 다양했지만, 입학 후에 한국어가 미숙해서 성적도 낮고,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반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으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학교에서 혼자 외롭게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연습해서 자신감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조선어를 배운 청소년들도 한국에서 반 친구들이 사용하는 줄임말이나 외래어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존댓말을 쓰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고, 미숙한 존댓말이 대인 관계나 사회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들 스스로 한국어를 연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한국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한국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들은 대부분 입국 초기에 다문화 학교나 센터에서 만난 중국 출신 친구들이고, 한국 출신 친구들과는 문화 차이와 언어 문제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 주제 3. 부모님으로부터 분리와 재회

부모님의 한국 이주로 부모님과 떨어져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자신을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 한국에 온 후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 청소년도 있었고, 대부분 청소년들이 한국에 부모님과 친척들이 있어 큰 힘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입국 후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초반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신경 써주시는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대부분의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부모님이 이주한 것을 아주 슬픈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는 반면, 별 다른 느낌이나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당시에 아주 슬펐던 청소년들도 후에 부모님이 가정을 위해 일을 하러 갔다고 이해하고 원망을 내려놓게 되었다. 부모님과 떨어져있는 동안 연락을 자주하거나, 부모님이 비자 때문에 중국 왕래를 자주 한 경우 부모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주제 4. 이주는 발전과 성장의 기회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 온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려움

을 겪었지만, 고난을 통해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한국에 와서 많은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자립심을 길렀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학교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으로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했고, 이것을 긍정적인 변화라고 인식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 3. 앞으로의 연구 방향

중간 요약을 통해 지금까지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공유한 경험과 생각에서 나타난 주요 주제를 정리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과 만나서 이 주제들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입국 시기와 그에 따른 정체성이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 생활에 주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부모님의 이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한 경험이 청소년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 계기와 한국에 온 후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 이해는 추후에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